

산재왕국에서 벗어나 안전선진국으로 도약

경제 침체와 맞물려 침울해져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여러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

라 봅니다. “천재보다는 인재”라는 말이 언론 및 국민들 사이에 이야기되어지고 정부가 대형 사고를 겪고 나서 불을 끄려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이 생활하는데 안전보건의 최우선 시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공해에 시달리면서 맘흘려 일한 덕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 모두의 결집된 응집력이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과거 노동 현장의 분위기는 사업장내에서 노동조건이 정부 및 사용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측면에서 안전보건분야의 영역은 더욱 좁아 졌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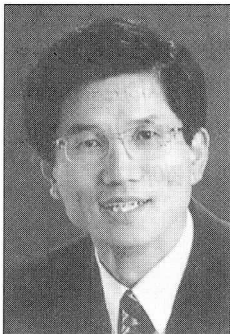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안전보건 문제가 소외시 되어 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산재 노동자를 비롯 소외 계층의 생활대책 강구가 시급한 현안 문제이고 현재의 산업재해보상 체계의 개선으로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 재활을 위한 과학적 체계 확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활동 가운데서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뜻깊은 세기를 맞이하는 부산한 마음 또한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 속에서 점점 이기적인 습성에 젖게되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아무런 감각 없이 부실 공사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쓰러져 가도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들 뿐입니다. 공사현장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소홀과, 유해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각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노력에도 우리들은 무책임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조차도 작업복, 안전화, 안전표지 등 너무 소홀히 작업에 임하는 것 등도 사실이었습니다.

불감증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여유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인 여러분! 새로운 세기다. 밀레니엄이다.

감각적으로만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보전에 관해서 그리고 이 지구상의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과 그 후손까지 이 지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전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정립해 나간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개인부터 나아가서는 이웃과 공동체,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교류하며 이 문제에 적극 힘쓴다면, 우리들의 실천의지가 높아지고, 안전보건은 살아날 것이며, 사회의 모든 곳곳에서도 다시 숨쉬는 안전한 활동 장



국회의원 김 문 수

소, 삶의 터전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주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노력과 연구와 관심으로 새천년에는 지구 어느 곳이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곳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개인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사회는 다 같이 손잡고 연구하고, 개선하여 나아가 간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세기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이 새롭게 우리와 함께 지속될 것이며, 진정한 새로운 천년을 우리의 후손과 자연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밀레니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힘써시다!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천년에 선물을 주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안전보건분야에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경제위기로 인한 것만은 아니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IMF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다른 경제체제의 사회 즉, 지식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체제나 사회 시스템에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연속적으로 노출되리라 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은 막을 수 없는 선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척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올 상반기 재해 발생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질병, 진폐 등 비조사 대상재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98년부터 산재통계에 포함된 금융보험업과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안전담당 이었고 예산절감의 우선 분야가 안전분야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려고도 OECD에 가입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경제논리로 생명의 소중함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고 안전은 경제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채 감당키 어려운 불행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 대다수의 관련자는 "법을 준수하고 산재보상이 실시되니 나의 책임은 다했다"라는 식의 간단한 논리로 풀어가려 애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 주도형의 안전보건분야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책임 회피에만 치중케되는 폐단을 가져 오며, 투자의 선행에 의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분야의 활성화 구호만 난무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계층은 대다수가 한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절대 빈곤으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산재왕국에서 벗어나야 하고 안전보건분야에 좀더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누구나 안전한 토대위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는 속에서 새 천년은 분명히 새로운 메시지와 변화의 정도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새 시대, 새 천년을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체제나 사회 시스템에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연속적으로 노출되리라 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은 막을 수 없는 선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